

동정

- 회원사
- 관련기관

SK 텔레콤

「IMT 2000」 시험시스템 개발

SK텔레콤이 세계에서 세번째로 차세대 이동통신(IMT 2000) 시험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 5일 대전 중앙연구원에서 개최한 IMT2000 시험시스템 시연회에서 광대역 CDMA 무선접속규격과 ITU가 정한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 국내 최초의 IMT2000 시험시스템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이 구현한 시험시스템은 음성통화는 물론 1백28Kbps급 고속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시연회에서는 무선영상통화, 무선 인터넷 접속, TV 동영상 감상 등이 선보였다.

CDMA방식 이동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세계 선두를 달려온 SK텔레콤이 세계적인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 주도권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CDMA기술을 바탕

으로 한 IMT2000 시험시스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차세대 이동통신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특히 지난 95년 이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NTT 도코모사의 기술방식을 따른 시험시스템을 개발, 발표함으로써 IMT2000 분야에서 양사의 공조체제를 과시하는 한편 일본식과 미국식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국내의 표준경쟁에서도 일본식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IMT2000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 96년 10월 일본 NTT 도코모사와 공동개발협정을 올해 6월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일 공동규격의 IMT2000시스템을 98년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번 1백28Kbps 무선접속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3백

84Kbps, 98년 말까지 2Mbps 전송속도의 무선 멀티미디어 기술을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다.

IMT2000은 2000년경 상용화를 목표로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2G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해 고속 이동시 3백84Kbps, 저속이동시 2Mbps의 전송속도를 실현해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개인통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하고 있다.

조흥증권 「홈트레이딩」 넷츠고 서비스

SK텔레콤은 선경증권과 조흥증권의 홈트레이딩서비스를 넷츠고를 통해 제공한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업종정보, 종목정보, 시황정보, 매매주문 등의 각종 정보를 문자와 그래픽을 통해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넷츠고에 접속, 「금융경제」 메뉴에서 「증권」, 「선경증권(SKSHTS)」 또는 「조흥증권」을 차례로 선택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 제공과 함께 선경증권의 홈트레이딩서비스를 이용한 주식투자수익률 경진대회를 개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KDC 정보통신

ISDN 라우터 2종 시판

KDC 정보통신이 ADC 켄트록스의 소형 종합정보통신망(ISDN) 라우터 2종을 시판한다.

「페세서 SOHO」와 「페세서

PRO」로 명명된 이들 라우터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IP/IPX, X.25, PPP 등을 전송하며 사용자 확인, 인증 등 보안기능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단순네트워크관리프로토콜(SNMP)도 내장하고 있다.

「페세터 SOHO」는 ISDN과 일 반전화선을 통해 원거리통신망(WAN)을 구축할 수 있는 장비로 ISDN BRI 포트(최대 1백28Kbps 급) 1개와 일반 전화선 포트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4개의 10Mbps 급 이더넷 근거리통신망(LAN) 포트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페세터 PRO」는 ISDN, 프레일림레이 접속 라우터로 RS232, V.35, V.21 등 3개의 원거리통신망(WAN) 포트를 제공한다.

데 이 콤

천리안 인터넷 유료 서비스

데이콤은 증권시세정보, 부동산뱅크, 토익학습정보 등 10여개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한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중에 천리안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ollian.net>)를 통해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버 구축능력이 없는 중소 CP(컨텐츠제공업자)를 대상으로 천리안 웹서버를 임대하기로 했다.

천리안의 과금서비스는 텔넷접

속을 통해 이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머드게임 등은 종량제를, 이용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웹서비스는 하루 1백원에서 1천원의 일일 정액제 또는 월정액제로 구분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웹브라우저상에서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인, 종량제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천리안 홈페이지에 접속해 「유료 웹서비스」를 선택하고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쇼핑몰 “인터파크” 설립

데이콤은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사내 소사장제도를 발전적인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의 사이버 쇼핑몰인 「인터파크」를 「데이콤 인터파크(주)」로 독립 법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데이콤은 우선 설립자본금 10억원을 100% 전액출자해 9월중순까지 법인화 작업을 마친 후 10월 중 1차로 유통업체, 금융기관,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98년중으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금을 2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데이콤은 이번에 인터파크를 독립법인화한 것을 계기로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몰을 구축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 결제,

배송을 모두 관리하고 운영을 대행해주는 「사이버마켓 호스팅 서비스」와 PC파크, 북파크, CD파크 등 특정분야의 상품을 최대로 보유한 전문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몰 & 몰스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객정보 및 판매정보에 대한 인증기관 역할수행 및 쇼핑물건 네트워크 구축사업인 「게이트웨이서비스」, 콘텐츠 구성 및 제작 등의 「쇼핑물 구축 및 제작업무」, 티켓팅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예약, 예매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오는 2003년에는 국내 최대의 쇼핑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통신

금고관리업무 자율운영

정보통신부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와 함께 한국통신이 출자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체신관서에서 맡아 온 한국통신 금고관리 업무를 한국통신에게 넘겨주기로 했다고 지난 9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체신관서에만 예치토록 돼 있던 자금을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여유자금 운용이 훨씬 쉬워지게 됐다.

베트남 항공기 사고 관련

통신장비 지원

한국통신은 한국인 탑승객 21명이 숨진 베트남 항공기의 캄보디아 추락사고와 관련, 지난 9월 4일 현

지로 출발한 사고대책반에 인마세 트 위성을 이용한 휴대용 위성이동 단말기(미니엠펜) 2대를 지원했다고 지난 9월 4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또 현지로의 국제전화 수동통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 국제교환국에 3명, 부산 국제교환국에 2명을 증원 배치, 국제전화 안내를 담당토록 하는 한편 베트남항공사 서울지사에 착신전용 전화 3대를 긴급설치했다.

오성정보통신

인터넷폰 장비사업 참여

콜센터 전문업체인 오성정보통신이 폰투폰 서비스용 인터넷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

지난 9월 4일 오성정보통신은 보켈텍사의 국내 소프트웨어 독점 공급업체인 데이콤인터내셔널과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켈텍 텔리폰 게이트웨이(VTG)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공급하는 한편 VTG 소프트웨어용 시스템을 주문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성정보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인터넷폰 서비스 제공자(ITSP)용 중·대용량 시스템과 대기업상사, 무역회사용 중형시스템, 구내통신사업자용 중소형 시스템 등으로 구분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오성정보통신은 VTG 시스템용 음성보드 전문업체인 다

이얼로 직사의 음성보드를 사용한 ITSP용 시스템을 9월말까지 자체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 SDS

“국방의료정보체계” 1차사업 수주

삼성SDS가 의무사령부(사령관 전태준 육군소장)의 「국방의료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국방의료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군병원의 의료정보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2005년까지 EMR(전자 의무기록) 및 PACS(의학영상 전송시스템) 기능을 추가해 발전된 국방의료정보체계를 구축, 전군의 전투력을 보존하는 사업이다. 삼성 SDS는 이번 프로젝트 수주로 99년까지 1차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 SDS, 현대정보기술, LG-EDS 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등 업체가 참여해 치열할 경합을 벌였다.

이번 사업자 선정을 위해 국방부 조달본부는 SI프로젝트로는 처음으로 적격 심사 낙찰제를 실시, 전용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 제안설명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SDS는 기존의 의료정보시스템 구현기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구현기술, 멀티미디어기술 등 차세대 기술을 총망라하는 텔레메디신 환경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AT&T 인터넷서비스 전국 확대

삼성SDS는 그동안 서울지역만을 대상으로 제공해오던 AT&T 인터넷서비스를 유니텔 전국 접속망과 연계, 지난 9월 3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T&T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들은 기존 전용접속번호 외에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01433망과 유니텔의 지방 접속번호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용접속번호를 이용할 경우 ID란에 ID@att.co.kr을, 01433망과 유니텔 지방 접속번호를 이용할 경우 ID란에 ID@att 형식으로 입력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AT&T 인터넷서비스는 미국 AT&T 월드넷을 기반으로 고급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룹 통합 OA툴 가동

삼성SDS는 그룹 통합 OA툴인 「싱글 오피스 2.0」을 개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로 개통한 「싱글 오피스 2.0」은 싱글 통합 메뉴로 윈도우 95의 32 비트 환경을 지원하며 PC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웹 URL까지도 편리하게 등록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RTF와 HTML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환경의 문서를 지원하고 있어 내장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의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싱글 오피스 2.0」은 팩스 출력 기능을 이용해 별도의 장치없이 임직원 누구나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 팩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피스 2.0」과 함께 제공하는 「싱글 PIMS」는 개인의 일정이나 타인의 일정조화가 가능한 일정관리와 고객의 명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명함관리기능을 갖추고 있다.

LG-EDS 시스템

사이버 쇼핑물 서비스 개시

LG-EDS시스템이 사이버쇼핑물인 「트윈피아」를 지난 9월 1일 개통,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에 서비스를 개시한 「트윈피아」는 하나의 화면에서 주문 접수부터 배송확인까지 가능하고 국내 처음으로 실시간 카드 승인을 통해 카드 사용시의 편리성을 제고시켰다. 또 보안을 위해 방화벽을 설치, 보안 웹서버 운영, 고객정보의 암호화등 3중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다. 「트윈피아」의 서비스는 MALL(컴퓨터 및 주변기기, 생활용품), 정보(컴퓨터 및 생활정보), 추가 서비스 판매(컴퓨터 서적, 컴퓨터 관련 구인/구직), 이벤트(선물, 꽃배달), 취미/오락(국내외 오락, 게임, 취미), 광고/리서치(고객 만족도 및 여론조사), 「나만의 MALL」등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 쇼핑물의 주요 고객이

20~30대 회사원들을 감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생활용품, 서적등을 중점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LG-EDS시스템은 고객들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상품구매시 판매가격중 3를 고객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리서치/광고 코너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에게 참여 회수만큼 적립금을 제공, 향후 상품 구매시 적립액만큼 할인해주는 「사이버 적립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특산물 유통시스템 충북에 구축

내년부터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충북지역 농특산물이나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직접 주문해 받을 수 있게 된다.

LG-EDS시스템은 충청북도의 생산품 유통시스템 개발사업자로 선정돼 내년 6월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9월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특산제품과 공산품을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생산단지, 배송업자,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중간유통 가정을 대폭 줄였다.

충청북도는 이 시스템을 앞으로 초고속통신망과 지역정보센터와도 연결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지리정보안내시스템과 민원과 도정정보를 게시하는 생활정보안내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현대정보기술

인터넷 쇼핑물인 “신비몰” 개점

현대정보기술이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인 신비몰에 인터넷 쇼핑물 사이트인 「신비몰(Shinbimall)」을 지난 9월 1일 개점한다.

지난 6월부터 쇼핑물 입주 업체를 모집해온 현대정보기술은 2백50여개 업체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두차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등 활발한 개점 준비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7개업체를 쇼핑물에 입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점하는 신비몰은 기업과 소비자사이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연결시켜 주는 중계서비스로 쇼핑물 입주업체들로부터 입주비용만 받을 뿐 업체와 소비자사이에 별도의 중간 유통차익이 없는게 특징이다.

신비몰은 현행 법규상 이증가거래의 불허로 매장판매가와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기존 백화점 및 유통업체들의 인터넷 쇼핑물과 달리 시증가보다 5~20%가량 저렴한게 특징이다.

신비몰에는 만도프라자를 비롯해 두산우리 등 대기업에서부터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입주해 있으며, 꽃배달서비스, 패션용품, 의류, 자동차용품, 가전제품 및 컴퓨터관련 용품, 성인용품 등 7백여개의 다양한 상품이 전시되고 있다.